

진펄길을 헤치신 사연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중화군의 어느한 리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직 이슬이 맺혀있는 보리밭머리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리안의 농사일을 료해하시였다.

다른 마을에서 기계로 밀을 씨뿌리기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험한 길을 걸으시여 그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좋은 샹터가 있다는것을 아시고서는 샹터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일꾼들이 거기는 못가는 곳이라고, 이만저만한 진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였지만 그이께서는 이전에 일제와 싸울 때에는 그보다 더 험한 길도 다녔다고 하시며 진펄길에 들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양어장자리도 잡아주시였다.

이 물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길러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금시 펄펄 뛰는 물고기들을 보시는듯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 농민들과 마주앉아 농사일도 의논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방도도 토론했다고, 농업협동화도 잘되여가고 나라일이 잘되여가니 마음이 기쁘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